

대만 반도체 · LCD업체들 해외자금 조달 대폭 확대

대만 반도체 및 LCD업체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자금 조달을 추진했다. 대만 업체들의 해외자금 조달 확대는 하이테크 경기의 회복으로 설비 투자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고 세계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금융자본의 조달이 쉬워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형업체들의 올 상반기(1~6월) 조달액은 총 17억 9100만달러로 전년 하반기(7~12월) 7억 5400만달러의 2.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금융 조달 수단은 해외주식시장에서 발행하는 예탁증서(DR)가 주를 이루었다. LCD업체 가운데서는 치메이가 지난 6월 유럽시장에서 7억 5000만달러의 해외 DR을 발행했고 반도체 업체인 프로모스테크놀러지도 지난 6월에 2억 2500만달러의 전환사채(CB)를 발행, 설비 투자자금을 마련했다. 또 7월 이후에는 반도체 최대업체인 TSMC가 13억 400만달러, LCD 최대업체인 AUO가 4억 6000만달러의 DR을 발행, 해외 조달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뉴스출처 : 전자신문

뜨겁게 달아오르는 스리랑카 통신산업

스리랑카 통신산업이 1980년부터 시작되었던 정부 규제가 완화되고 시장을 개방, 최근 수년간 급속한 수요증가와 사업자 간 시설투자확대 경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 통신산업은 지난 수년간 스리랑카 산업 중 성장률이 가장 높은 분야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높은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스리랑카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로써 국영 말레이시아통신이 전액 투자한 Dialog Telekom의 급작스러운 부상과 성공은 이러한 스리랑카 통신산업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스리랑카 통신산업의 활황을 이끄는 분야는 무엇보다도 이동통신 분야로 유선전화 통신 가입자 수를 조만간 능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가입자 유지 확대를 위해 중계소 설치를 늘려 통신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고 GPS서비스, 인터넷연결, 각종 부가가치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스리랑카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4년 통신 네트워크 가입자 수가 전년대비 무려 36% 증가했는데, 이는 특히 이동통신 분야 가입자 수가 전년대비 무려 67%증가한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한다.

뉴스출처 : KOTRA

중국 IT 시장 향후 5년간 고속 성장세 지속될 전망

일부 산업에 대한 투자 과열을 억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경기 냉각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IT 시장은 여전히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IDC의 최근 보고서인 'China IT 2005-2009 Forecast and Analysis (August 2005)' 에 의하면, 2004년 중국 전체 IT 시장은 전년대비 12.4% 성장해 2003년 244억 8830만달러에서 275억 2130만달러로 증가했다. IDC는 2004년에서 2009년까지 향후 5년간 중국 IT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13.1%를 기록하며 고속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의 주요 성장 동인으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강력한 정부 투자, 중소기업(SME)에 의한 IT 수요와 비즈니스 모델의 세계화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인민폐(RMB) 강세, 국영기업(SOE)의 자금 지원 부족, 그리고 산업 구조조정 등이 향후 5년간 시장 성장에 있어 주요 저해 요소가 될 것이다.

뉴스출처 : 뉴스 와이어

| 새 | 책 | 안 | 내 |



무형자산은 곧 유형자산이다 《지식시대의 조직 이렇게 키워라》

핀란드 한켄경영대학원 지식경영 교수이며 지식경영의 창시자인 칼 에릭 스베이스 박사가 지은 'Managing and Measuring Knowledge - Based Assets'의 한국어 개정증보판. 먼저 제1부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개념을 탐색한다. 제2부에서는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비결, 내부구조를 통한 효율과 효과의 개선 등 무형자산 관리와 관련된 조금 더 실용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제3부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이자 컨설팅 회사인 WM-데이터의 사례를 통해 무형자산을 측정하는 도구를 제시한다.

이 책은 '조직의 새로운 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자산의 측정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식조직을 어떻게 경영하고 키워야하는가가 보다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금전적이거나 재무적인 수입을 통해서 조직의 유형적인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무형자산이라는 비금전적이고 비재무적이면서 비가시적인 '부'를 키워나가면 궁극적으로 금전적이고 재무적이며 유형적인 '부'로 연결된다는 것이다.